趙 南 勳*
李 任 田**

都市低所得層 家族計劃實態分析
大田·大邱地域을 中心으로

〈目 次〉

Ⅰ. 研究背景 및 方法
Ⅱ. 應答婦人의 特性
Ⅲ. 家族計劃 情報의 露出程度
Ⅳ. 子女에 대한 価値觀
Ⅴ. 避姙實踐現況
Ⅵ. 要約 및 結論

Ⅰ. 研究背景 및 方法

1. 背景 및 目的

우리나라 人口增加抑制政策의 主要手段으로 推進되어온 政府家族計劃事業은 初期부터 家族計劃要員과 避姙施術 指定醫制度를 根幹으로 한 農村地域 위주의 事業推進戰略을 지속하여 왔다. 이는 당시 우리나라 全体人口中 70퍼센트이상이 農村에 居住한 반면에 都市地域은 社會, 經濟, 文化的으로 避姙受容與件이 有利한 점에서 家族計劃이 쉽게 擴散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農村地域에 力點을 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62年以來 經濟開發計劃은 産業構造를 傳統的인 營農形態에서 工業化로 急變시켰고, 여기서 工業化는 都市를 據點으로 시작되어 農村人口의 都市轉入은 급속히 늘어나게 되었다. 人口센서스에 의하면 1960年에 全体人口中 都市人口는 28퍼센트에 지나지 않았으나, 1975年에는 48퍼센트로 크게 增加되었고, 家族計劃對象인 有配偶可姙婦人의 比率은 27퍼센트에서 51퍼센트로 급격히 增加하였다. 특히 서울의 경우 1960年 46萬名에 불과했던 可姙婦人數가 1975年에는 무려 140萬名으로 約 3倍나 增加하였다.

이와같은 農村人口의 大都市轉入으로 형성된 都市零細地域住民은 이들 특유의 生活要件으로 不安定한 生活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出産率은 상대적으로 높게 되고 避姙實踐이 低調하기 때문에 出産調節 接近活動이 強化되어야 한다는

*韓國人口保健研究院 首席研究員.
**韓國人口保健研究院 責任研究員.

意見이 많은 識者에 의해서 強調되었다.[1]

따라서 政府는 大都市地域의 低所得層을 위한 家族計劃事業의 일환으로 1974年부터「유엔人口活動基金」(UNFPA)의 支援으로 零細地域內에 家族計劃센타를 設置運營하므로서 손쉽게 避姙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措置하였다. 이 家族計劃센타는 醫師 1名, 啓蒙要員 4名, 그리고 行政要員 1名으로 編成되었고, 管轄保健所長의 指導監督下에 零細地域住民을 위한 避姙普及活動에 置重토록 하였다. 同 센타는 1974年에 서울의 零細地域에 10個所, 1976年에는 釜山 및 大邱에 각각 2個所, 그리고 1978年에는 仁川, 光州, 大田 등에 각각 1個所씩 設置하여 總 20個所가 운영되었다.

그러나 同센타의 運營은 零細民의 특수한 生活與件에 대한 고려없이 旣存 保健所의 家族計劃事業運營과 동일한 管理方式을 따른 외에 센타의 빈약한 醫療 施設이나 人力으로 인해 별다른 成果를 얻지 못하였다. 특히 大都市地域에는 良質의 家族計劃施術 指定病院이 散在되어 있고, 또 避姙施術은 政府支援으로 無料提供되어 단순한 避姙普及 위주로서의 센타運營은 地域住民의 호응도나 投資效果 및 事業管理側面에서 많은 問題點을 내포하게 되었다. 따라서 政府는 1982年부터 家族計劃센타를 管轄保健所와 統合하여 運營토록 措置하고 家族計劃要員의 啓蒙活動을 零細地域에 集中토록 함으로써 그 命脈을 유지하고 있는 實情이다.

한편 大韓家族計劃協會는 1978~1981年 期間中「유엔 人口活動基金」의 支援으로 都市零細地域에서 새마을婦女會를 통한 家族計劃示範事業을 서울의 5個洞과 釜山의 2個洞을 대상으로 推進하였으며, 이는 1982年부터 年次的으로 擴大되어 1984年에는 國庫支援으로 全國의 11個市道에서 1,800個의 零細地域(統)을 대상으로한 事業活動을 展開하기에 이르렀다. 동 事業의 主要內容은 家族計劃協會 啓蒙要員, 保健所要員 및 婦女會長으로 구성된 巡回啓蒙班을 編成하여 夜間巡回教育을 實施하고 婦女會長에 대한 不姙手術裝勵金의 支援, 洞 婦女會에 대한 定例會議費(年 3回) 및 啓蒙班의 活動에 필요한 所定의 費用을 支援하여 地域社會中心의 自律的인 事業參與를 促進하는데 力點을 둔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活動以外에 政府는 1982年부터 零細住民의 少子女價値觀의 形成과 避姙實踐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不姙手術을 수용한 零細民에게 特別生計費(두 子女 以下인 경우 10萬원, 세 子女 以上은 3萬원)를 支給하는 한편, 두 子女만 두고 不姙手術을 受容한 家庭에는 6歲未滿 子女에게 保健所의 1次無料診療

1) 李效再, 李東媛, 都市貧民家族問題 및 家族計劃에 관한 硏究, 女性資源開發硏究所, 1972.

를 提供하고 있다.

그간 서울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大都市零細民을 위한 家族計劃事業은 地域內에 家族計劃센타를 設置하거나 洞·統長 및 새마을婦女會를 통한 啓蒙教育과 避姙普及에 力點을 두었다. 이와같은 接近은 이들이 社會·經濟的으로 낙후한 生活環境에서 높은 出産水準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서어비스는 有効하여 1974年 以來 實施된 여러 調査結果 이들의 避姙實踐率이나 出産率이 결코 都市地域의 一般住民과 비교하여 별다른 差異를 나타내지 않게 되었다[2]. 그러나 이와같은 調査는 대부분이 서울市의 零細地域을 대상으로 實施되었기 때문에 本 調査는 大田市 및 大邱市에 居住하는 都市零細民의 社會·經濟的 特性과 出産 및 避姙에 관한 實態를 分析하는데 目的을 두었다.

2. 調査對象 및 方法

일반적으로 都市零細民은 住居形態나 生活水準의 程度등 社會經濟的 與件에 의해서 다양하게 定義될 수 있기 때문에 調査對象을 일정한 基準下에서 選定한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한 일이다. 따라서 本 調査의 對象은 任意抽出方法에 의해서 大田市 및 大邱市에서 低所得層住民이 가장 많이 密集되어 있는 洞을 選定하고 洞長과의 協議下에 가장 零細한 統을 1～2個統씩 抽出하여 이들 統에 居住하고 있는 15～44歲에 속하는 有配偶婦人을 對象으로 하였다. 즉 大田市에서는 中區(龍頭1洞, 富士洞, 木洞)와 東區(大成2, 3同, 成南1洞, 新興洞)의 6個洞에서 2個統씩 抽出하였고, 大邱에서는 中區(南山1洞). 東區 新岩2洞), 西區(飛山1洞), 南區(大明8洞), 北區(大然3洞), 水城區(水城1街洞)의 6個洞에서 1～2個統을 抽出하여 全体 對象婦人을 調査對象으로 하였다.

〈表1〉에서와 같이 全体 902名의 調査對象婦人中 66.7퍼센트에 해당하는 602名에 대한 調査가 完了되었고, 未完了된 理由로서는 外出中이 14.1퍼센트로 가장 높았으며, 居住不明 및 長期出他가 각각 4.9퍼센트, 3.4퍼센트였다.

---

2) 權豪淵, 趙南勳, 崔焞, 서울市 零細民地域 家族計劃實態 및 그 普及方案研究, 家族計劃研究院, 1974.
林鍾權, 金智子, 李德成, 統班長을 통한 都市低所得層 住民의 母子保健 및 家族計劃普及方案研究 基礎調査報告書, 家族計劃研究院, 1978.
高甲錫, 崔錫萬, 都市低所得層 家族計劃事業評價, 家族計劃研究院, 1979.

Table 1. Field Survey Responding Status

現地調査 實施結果

Survey Responding Status	Daejon	Daegu	Total
Completed	66.1%	67.4%	66.7%
Removal of residence	7.5	6.0	6.8
Unknown residence	6.9	2.9	4.9
Prolonged outing	3.3	3.6	3.4
Short period outing	12.8	15.4	14.1
Others*	3.4	4.7	4.1
Total (N)	100.0 (454)	100.0 (448)	100.0 (902)

*Misunderstanding of Age (above 45 years old), divorced, abscondence, refusal of responding, etc.

本 調査는 訓練된 調査員 6名에 의한 面接調査를 통해서 1984년 7월 9일부터 7월 24일까지 該當調査地域에서 實施되었다. 調査對象地域 및 婦人의 名單은 事前에 해당 市·道 및 洞의 實務者와 協議하여 韓國人口保健研究院의 實務陣에 의해서 作成되었으며, 調査票內容을 검증하기 위해 豫備調査가 1984년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實施되었다. 調査票는 都市零細民의 社會·經濟 및 人口學的 特性, 家族計劃事業에 대한 露出程度, 子女에 대한 價値觀, 避姙實態에 관한 內容 등으로 構成되었다.

Ⅱ. 應答婦人의 특성

1. 年齡및 結婚期間

年齡과 結婚期間은 個人의 出産行爲와 避姙行爲를 說明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指標가 되기 때문에 出産力分析에서는 필수적으로 使用되는 主要變數이다.

〈表 2〉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本 調査應答婦人들의 平均年齡은 33.1歲이고, 平均 약 11.5年의 結婚生活이 경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婦人들의 年齡別 分布를 보면, 出産力水準이 높고 政府家族計劃事業 避姙普及의 主目標對象年齡層인 15~34歲年齡群이 58.4퍼센트로 半數를 넘고 있다. 이들 15~34歲年齡群의 構成은 大邱와 大田 兩地域間에 相異한 樣相을 나타내고 있다. 大田의 경우 15~34歲 年齡群의 比率이 半數를 약간 넘는 53.8퍼센트인데

Table 2. Percent Distribution of Respondents by Age and Marital Duration

應答婦人의 年齡 및 結婚期間

Classification	Daejon	Daegu	Total(N)
Age			
15~24	8.1%	7.3%	7.7% (46)
25~29	25.2	29.8	27.5 (165)
30~34	20.5	25.8	23.2 (139)
35~39	21.5	21.5	21.5 (129)
40~44	24.8	15.6	20.2 (121)
Marital Duration			
2 years	3.4	5.3	4.3 (26)
2~4 years	8.4	7.3 6	8.0 (48)
4~6 years	11.4	10.9	11.2 (67)
6~8 years	8.7	13.2	11.0 (66)
8~10 years	10.1	10.6	10.3 (62)
10~12 years	7.7	12.3	10.0 (60)
12~14 years	8.7	9.6	9.2 (55)
14~16 years	7.4	6.0	6.7 (40)
16~18 years	12.4	7.3	9.8 (59)
18~20 years	7.4	7.0	7.2 (43)
20 years	14.4	10.3	12.3 (74)
Total	100.0	100.0	100.0
(N)	(298)	(302)	(600)
Mean Age (years)	33.6	32.6	33.1
Mean Period of Marriage (years)	12.1	10.9	11.5

反해, 大邱의 경우는 약 3분의 2에 達하는 62.9퍼센트나 되고 있어 兩地域間에 약 9퍼센트 포인트의 큰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平均年齡 역시 大田이 大邱에 比해 약 1歲 程度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應答婦人들의 結婚期間別 分布를 살펴보면, 婚姻後 姙娠·出産活動이 가장 활발한 時期에 속하는 6年未滿의 婦人이 大田, 大邱 兩地域間에 차이 없이 全体應答婦人의 약 4分의 1에 達하는 23.5퍼센트였고, 이미 子女의 出産

을 完了했을 時期로 볼 수 있는 10年以上된 婦人이 過半數인 55.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 結婚한지 10年以上된 婦人의 比率은 大田이 大邱에 비해 약 5퍼센트 포인트정도 높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平均結婚期間에 영향을 미쳐 大田地域婦人이 大邱地域婦人에 比해 平均結婚期間이 1年程度 더 길게 나타났다.

2. 現存子女數

多子女 및 男兒選好觀은 그동안 많은 研究結果에서 現存子女數나 男兒數가 出産水準 및 避姙行爲를 決定하는 重要要因으로 報告되어 왔다.

追加子女希望者나 斷産을 위한 避姙實踐者의 現存子女数와 그 子女의 性構成狀態는 바로 그 當事者의 子女規模 및 性選好觀을 나타낸 것으로 看做할 수 있을 것이다.

平均年齡이 33.1歲이고, 平均結婚期間이 11.5年인 本調査 全體應答婦人들은 平均 2.63名의 現存子女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平均 現存아들數와 딸數는 半半씩이었다(表 3. 參照).

地域別로는 大田地域 應答婦人들의 平均現存子女数(2.81名)가 大邱地域 婦人(2.46名)들에 비해 많았고, 全體 應答婦人중 過半數인 51.7퍼센트가 3名以上의 子女를 두고 있었다. 여기서 3名以上의 子女를 둔 婦人의 比率은 大邱의 경우 45.0퍼센트인데 反해, 大田에서는 58.4퍼센트로 兩地域間에 약 13퍼센트 포인트 以上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3. 姙娠·出産 및 人工姙娠中絶回數

全體 應答婦人이 平均 11.5年의 結婚期間동안 經驗한 姙娠數(現在姙娠 포함)는 總 2,654件, 正常出産數는 總 1,603件으로 婦人當 平均 4.42回의 姙娠을, 그 가운데 平均 2.67回의 正常出産을 經驗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全體 平均姙娠數를 초과하는 5回以上의 姙娠을 경험한 婦人은 41.0퍼센트, 平均現存子女數를 초과하는 3回以上의 正常出産을 경험한 婦人은 過半數인 51.7퍼센트였다.

한편 全體 應答婦人 가운데 거의 3分의 2에 가까운 61.2퍼센트가 적어도 한번 以上의 人工姙娠中絶手術을 受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婦人當 平均 1.54回의 人工姙娠中絶手術을 받은 것으로 計算된다. 本 調査結果에서 報告된 人工姙娠中絶 經驗者比率 61퍼센트는 1982年의 全國調査結果에 의한 大都市地域의 15~44歲 有配偶婦人의 人工姙娠中絶 經驗者比率 53퍼센트에 比하면 8퍼센트 포

Table 3. Percent Distribution of Respondents by Number of Living Children, Number of Living Sons, and Number of Living Daughters

應答婦人의 現存子女, 아들 및 딸 數

Classification	Daejon	Daegu	Total
Number of Living Children			
0	1.7%	4.3%	3.0%
1	10.7	12.3	11.5
2	29.2	38.4	33.8
3	32.9	29.1	31.0
4	17.8	11.3	14.5
5 or more	7.7	4.6	6.2
Number of Living Sons			
0	15.1	18.5	16.8
1	39.3	42.4	40.8
2	36.6	34.1	35.3
3 or more	9.1	5.0	7.3
Number of Living Daughters			
0	22.1	33.8	28.0
1	37.9	31.5	34.7
2	25.5	20.2	22.8
3or more	14.4	14.6	14.5
Total(N)	100.0(298)	100.0(302)	100.0
Mean Number of Living Children	2.81	2.46	2.63
Mean Number of Living Sons	1.40	1.26	1.33
Mean Namber of Living Daughters	1.40	1.19	1.30

인트나 높은 比率이다(表 4 參照).

〈表 5〉는 應答婦人들의 年齡階層別 人工姙娠中絶 經驗者比率을 1982年度 全國調査結果와 比較해 본 것이다. 同 表를 종합적으로 觀察하건데, 25~39歲에서는 1982年에 比해 人工姙娠中絶 經驗者比率이 增加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Table 4. Percent Distribution of Respondents by Number of Pregnancies, Number of Normal Deliveries and Number of Induced Abortions

應答婦人의 總姙娠, 正常出産 및 人工姙娠中絶回數

	Daejon	Daegu	Total
Number of Pregnancies			
1	7.1%	7.9%	7.5%
2	17.4	14.6	16.0
3	17.4	19.5	18.5
4	13.8	20.2	17.0
5 or more	44.3	37.8	41.0
Number of Normal Deliveries			
0	2.3	4.3	3.3
1	10.4	12.6	11.5
2	29.5	37.4	33.5
3	29.5	28.8	29.2
4	18.1	11.6	14.8
5 or more	10.1	5.3	7.7
Number of Induced Abortions			
0	43.0	34.8	38.8
1	21.1	24.2	22.7
2	15.8	18.2	17.0
3	10.7	10.3	10.5
4	3.7	4.0	3.8
5 or more	5.7	8.6	7.2
Total (N)	100.0 (298)	100.0 (302)	100.0
Mean Number of Pregnancies	4.47	4.38	4.42
Mean Number of Normal Deliveries	2.85	2.50	2.67
Mean Number of Induced Abortions	1.40	1.68	1.54

Table 5. Percentage of Induced Abortion Experienced Women by Age

年齡別 人工姙娠中絶 經驗婦人 比率

Age	Daejon, Daegu Survey			1982 National Survey*	
	Total	Daejon	Daegu	Large Cities	Other Cities
15~24	22%	21%	23%	22%	17%
25~29	48	41	54	42	41
30~34	65	59	69	59	58
35~30	83	83	83	68	65
40~44	66	61	74	72	69
Total	61	57	65	53	51

*Lim, Jong Kwon, "Current Status of Induced Abortion (Interim Report of 1982 National Family Health Survey)" *Journal of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Vol. 2, No. 1, KIPH, 1982, p. 169

서도 특히 35~39歲 年齡群의 경우는 1982年에 比해 最小限 15퍼센트 포인트 以上의 급격한 增加率을 나타내고 있어 注目된다. 또 한편으로 人工姙娠中絶 經驗者比率은 大邱와 大田 兩 地域間에 相異한 樣相을 나타내고 있다. 즉 35~39歲 年齡群(大邱와 大田 모두 83%)을 제외하고는 모든 年齡集團에서 大邱地域 應答婦人들의 人工姙娠中絶 經驗率이 적게는 2퍼센트에서 많게는 13퍼센트 포인트정도 높았다.

平均姙娠數(4.42回)에서 平均現存子女數(2.63名)를 뺀 1.79回의 姙娠 가운데 1.54件은 出生으로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人爲的으로 消耗되었으며, 나머지 0.25件에는 自然流産 및 死産과 現在姙娠(28件)이 포함되고 있다.

以上에서 살펴 본 大邱와 大田의 低所得層地域 調査對象婦人들의 姙娠, 出産結果를 종합해 보면, 全體 應答婦人의 總姙娠件數는 2,654件이었으며, 이 總姙娠件數 2,654件 가운데 現在姙娠 28件을 제외한 姙娠結果가 終結된 姙娠件數는 모두 2,626件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姙娠結果가 終了된 2,626件에 의한 現存子女總數는 1,579名이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약 40퍼센트에 達하는 1,047件이 姙娠消耗(人工姙娠中絶, 自然流産, 死産)로 終結된 셈이 된다. 그리고 이 종결된 總姙娠의 3分의 1을 웃도는 35퍼센트가 人工姙娠中絶(總 925件)로 處理된 것으로 나타났다.

4. 最終 出産年度 및 分娩場所

〈表 6〉은 大邱와 大田地域 低所得層婦人들의 마지막 出産年度와 當該 마지막 出産時의 分娩場所를 보여준다. 本 調査에서 마지막 出産年度를 알아 본 것은 마지막 出産年度 그 自體에 대한 關心에서가 아니라 마지막 出産後의 避姙實踐様相과의 關聯性에 焦點을 두고 調査한 것이다.

本 調査結果 全體 應答婦人의 過半數인 53.6퍼센트가 1979年以前에, 18.8퍼센트가 1980~1981年, 그리고 27.7퍼센트가 1982年 以後에서 調査時까지의 期間中에 마지막 出産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의 마지막 出産이 곧 斷産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979年 以前에 한 마지막 出産의 경우는 전체 應答婦人의 55퍼센트정도가 最小 10年以上의 結婚期間이 경과된 婦人들이었다는 事實(表 2參照)을 감안할 때 이 마지막 出産의 거의 대부분이 斷産일 것으로 생각된다.

姙娠과 出産이 特殊한 경우를 제외한 거의 모든 女性에게 일어나는 正常的이고 生理的인 現象인데 反해, 分娩時에 隨伴될 수 있는 危險과 應急한 事態의 가능성도 주시해야 할 일이다. 따라서 安全分娩率을 높여야 한다는 母子保健의 입장에서 施設分娩과 專門的인 知識과 技術을 가진 保健醫療要員에 의한 分娩介助를 勸奬하고 있는 것이다.

大田과 大邱 低所得層婦人들의 마지막 出産時의 分娩場所를 알아 본 결과 마지막 出産年度가 최근에 이를 수록 施設分娩率이 현저하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

Table 6. Percent Distribution of Respondents Who Have Ever Given Birth to Babies by Year and Place of Their Last Childbirth
出産經驗 婦人의 마지막 出産年度別 分娩場所

Year of Last Childbirth	Percent Distribution (N)	Delivery Place			
		Total	Home	Hospital or Clinic	Midwifes Clinic or Health Center
1974 and before	23.8% (138)	100.0%	89.1%	10.9%	- %
1975~1979	29.8 (173)	100.0	63.0	28.9	8.1
1980~1981	18.8 (109)	100.0	46.8	42.2	11.0
1982~July 1984	27.7 (161)	100.0	26.7	47.2	26.1
Total (N)	100.0 (581)	100.0	56.1	32.2	11.7

로 나타났다. 1974年 以前에 마지막 出産을 한 集團의 경우는 施設分娩比率이 겨우 10.9퍼센트 밖에 되지 않던 것이 1975～1979年 期間中의 分娩集團에서는 37.9퍼센트로, 1980～1981年 期間中의 分娩群에서는 半數를 약간 넘는 53.3퍼센트로, 그리고 아주 最近인 1982以後에서 1984年 7月의 同 調査時까지의 期間中 마지막 分娩을 한 集團의 경우는 3分의 2를 훨씬 웃도는 73.3퍼센트가 施設分娩을 한 것으로 報告되었다. 상대적으로 1974年 以前에 마지막 出産을 한 集團의 경우 89.1퍼센트이던 自家分娩率이 1982年 以後에 마지막 出産을 한 集團에 와서는 26.4퍼센트로 무려 62.4퍼센트 포인트나 줄어들었다.

이와 같이 해가 거듭함에 따른 施設分娩率의 급속한 增加現象은 國民經濟水準의 向上, 그동안에 實施된 醫療保險과 少子女觀의 定着에 따른 母子保健에 대한 國民들의 意識水準이 그만큼 높아졌다는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大田, 大邱 低所得層婦人의 1982年 以後 마지막 出産의 家庭分娩率 26.7퍼센트는 1982年의 全國調査結果에 의한 1981～1982年 5月 까지의 都市地域 出産婦人의 家庭分娩率 20.8퍼센트에[3] 比하면 아직도 약 6퍼센트 포인트 정도 높은 水準이다. 이와 같이 本 調査對象 婦人들의 家庭分娩率이 약간 높은 것은 一般都市家口에 比해 低所得層家口의 經濟水準, 教育水準 및 醫療保險恵擇率[4]이 낮을 뿐만 아니라, 低所得層婦人들이 一般都市婦人들에 比해 母子保健에 대한 知識이 부족하고 意識構造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5. 可姙能力

可姙能力이란 正常生理로서 再生産行爲에 의해 姙娠을 할 수 있는 狀態를 말한다. 따라서 配偶者가 있는 婦人 가운데 姙娠이 可能한 婦人의 比率은 出産의 潜在力을 뜻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姙娠可能性 與否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事實上 매우 어렵다. 不姙手術이나 子宮摘出 같은 外科的 手術에 의한 不姙狀態나 閉經, 또는 醫師의 診斷에 의한 不姙症 등을 제외하고는 調査員이 婦人의 應答만을 가지고 可姙能力與否를 斷定하는 것은 그리 容易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本 調査에서는 最大限의 정확한 資料를 얻어내기 위하여 面接過程에서 質問을 세밀하게 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應答婦人 스스로 自然不姙이라고 應答한

---

3) 文顯相外, 1982年 全國家族保健實態調査報告,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2. p. 79.

4) 本調査結果 醫療保險의 恵澤을 받고 있는 家口는 全體 應答婦人의 33.8퍼센트에 불과했다.

경우 그 婦人의 年齡, 姙娠 및 出産, 避姙歷 등을 고려하여 婦人의 應答에 대한 再確認을 거쳐 姙娠危險에의 露出與否를 최종 결정하였다.

그 結果 表 7에서 提示되고 있듯이 大田와 大邱 兩地域 低所得層婦人들의 姙娠危險露出率은 現在姙娠 4.7퍼센트를 포함하여 46.2퍼센트로서, 확실하게 姙娠이 不可能한 婦人의 比率(51.7%)보다 오히려 밑돌고 있다. 姙娠危險露出率 46.2퍼센트는 1982年 全國家族保健實態調査結果에 報告된 全國都市地域婦人의 姙娠危險露出率 65.1퍼센트에[5] 比하면 거의 20퍼센트 포인트 정도 낮은 水準이다.

한편 應答婦人들의 姙娠危險露出率은 大田地域婦人들의 경우 39.9퍼센트인데 反해, 大邱地域의 경우는 全體 應答婦人의 過半數인 52.3퍼센트나 되고 있어 두 地域間에 매우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두 地域間에 姙娠危險露出率이 큰 差異를 보이는 理由는 大邱地域婦人들의 平均年齡이 大田 婦人들에 비해 1歲정도 낮았던 點과, 表 7에서 볼 수 있듯이 두 地域間의 不姙手術受容率의 差異가 그대로 反映되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즉, 大邱地域의 경우 不姙手術受容婦人의 比率이 40.4퍼센트인데 反해, 大田地域의 경우는 大邱에 比해 무려 12퍼센트정도나 더 많은 52.7퍼센트에 達했다.

Table 7. Percent Distribution of Respondents by Fecundity Status

應答婦人의 姙娠露出狀態

Fecundity Status	Daejon	Daegu	Total
Fecund	39.9%	52.3%	46.2%
(Currently pregnant)	(4.4)	(5.0)	(4.7)
Infecund	58.1	45.4	51.7
(Sterilization for contraception)	(52.7)	(40.4)	(46.5)
(Pick out of the uterus, menopause, sterility)	(5.4)	(5.0)	(5.2)
Others	2.0	2.3	2.2
Total	100.0	100.0	(600)
(N)	(298)	(302)	100.0

5) 文顯相外, 前揭書, 1982, p. 96.

6. 應答婦人의 教育 就業 및 所得水準

〈表 8〉은 本 調査對象인 大田과 大邱 低所得層地域의 15~44歳 有配偶婦人의 教育程度와 就業狀態, 그리고 家口當 月平均収入程度를 提示해 주고 있다.

먼저 應答婦人들의 教育水準을 보면, 全體婦人의 半數以上인 57.8퍼센트가 國民學校以下의 低學歷所持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1982年의 全國調査結果에 나타난 國民學校以下 學歷所持婦人의 比率 43.7퍼센트에[6] 비하면 14.1퍼센트 포인트나 높은 比率이다. 한편 同表에서 볼 때 應答婦人들의 教育水準이 大田과 大邱 兩地域間에 매우 현격한 差異를 보이고 있음이 注目된다. 大田地域의 경우 中等教育以上 學歷所持婦人의 比率이 全體의 3分의 1 程度인 33.9퍼센트인데 反해, 大邱地域의 경우는 半數 程度인 50.4퍼센트로 두 地域間에 무려 16.5퍼센트 포인트의 큰 隔差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本調査結果와 1982年 全國調査 結果와의 應答婦人의 教育水準의 差異, 그리고 本調査結果에서의 大田과 大邱 두 地域間의 差異는 本調査對象者가 低所得層이었다는 點과 大邱가 우리나라의 세번째 大都市라는 點을 감안해 볼 때, 이 與件自體가 그대로 反映된 結果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번에는 大邱와 大田低所得層婦人들의 現在의 經濟活動狀態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個人의 就業様相은 그 個人의 社會·經濟的 水準을 表現해 준다. 따라서 많은 研究結果에서 社會的 要因으로서의 個人의 就業様相과 出産力 및出産調節行態間의 相關性은 有意한 것으로 論議되어 왔다. 그러나 本 調査에서 婦人의 現就業様相에 대해 알아 본 것은 위에서 말한 出産力과 出産調節行態 間의 相關性에 焦點을 둔 것이 아니라, 本 調査對象者가 우리나라 大都市地域의 低所得層이라는 點을 감안, 政府家族計劃事業의 接近이라는 次元에 焦點을 둔 것임을 밝혀둔다.

"아주머니께서는 현재 집안일 이외에 돈버는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한다면 어떤일(구체적인 응답을 받았음)을 하시는지요?"라는 質問에 대한 應答結果가 表 8에 제시되고 있다. 調査된 全體應答婦人 600名 가운데 33.7퍼센트가 家計所得을 위한 經濟活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1982年 全國調査結果에 나타난 15~44歳 有配偶婦人의 經濟活動參與者 比率 6.9퍼센트[7]와 比較해 볼 때

---

6) 文顯相外, 前掲書, 1982, p. 160~162 〈表90〉에서 計算한 結果임(同表에는 年齡階層別, 各級學校別로 實數만 提示되었음)

Table 8. Percent Distribution of Respondents by Education Level, Current Occupation, and Mean Amount of Monthly Income

應答婦人의 敎育水準 現就業狀態 및 家口當 月平均 收入

	Daejon	Daegu	Total
Educational Level			
No education	6.4%	3.6%	5.0%
Elementary school	59.7	46.0	52.8
Middle school	25.5	34.8	29.7
High school and above	9.4	15.6	12.5
Current Occupation			
Not employed	64.1	68.5	66.3
Employed	35.9	31.5	33.7
Commerce	8.4	9.6	9.0
Regularly employed (at manufacturing factory)	6.4	7.3	6.8
Physical laborer	6.4	1.7	4.0
Peddler, streetvendor	2.0	3.3	2.5
Part-time made	3.4	1.7	2.5
Subsidiary home work	7.4	6.0	6.7
Others	2.0	2.0	2.0
Mean Amount of Monthly Income			
None	2.0	3.0	2.5
Below 150,000	6.7	4.0	5.3
150,000~below 200,000	16.1	13.6	14.8
200,000~below 250,000	23.8	23.8	23.8
250,000~below 300,000	16.8	14.2	15.5
300,000~below 350,000	17.8	25.5	21.7
350,000~and above	16.8	15.8	16.3
Total (N)	100.0 (298)	1.000 (302)	100.0 (600)
Mean of Mean Amount of Monthly Income (*Won*)	255,000	255,000	255,000

현격하게 높은 比率이다. 既婚女性의 就業機會가 극히 制限되어 있는 우리의 實情을 감안한다면, 本 調査對象婦人들의 높은 經濟活動參與率은 表 8에서의 이들 婦人들의 職種이라기 보다는 家內副業, 勞動, 行商 및 露店商, 파출부 등 일의 內容에서 알 수 있듯이 結果的으로 이들이 低所得層임을 분명히 해준다. 同 表에 表記된 職種 가운데 가장 많은 比率을 차지하는 商業(9.0%)은 대부분이 男便과 함께 하는 구멍가게나 家內手工業이었으며, 家內副業은 외부에서 일감을 집에 가져다가 하는 것(도라지 벗기는 일, 영세 제품포장, 영세 의류제품 뒷손질 등)이었다. 따라서 現在 經濟活動狀態에 있는 이들 婦人들의 일의 內容을 政府家族計劃事業의 接近이라는 次元에서 家內活動과 家外活動으로 兩大別해 볼 때 약 半半씩이다.

以上과 같은 婦人들의 就業樣相을 避姙普及이라는 政府家族計劃 事業側面에서 볼 때 工場生産職 雇傭者, 막勞動者, 行商 및 露店商, 그리고 파출부 등 집밖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婦人들에 대한 接近對策을 問題視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집 밖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婦人들의 대부분이 男便이 病中이거나, 失職中이거나, 돈벌이가 一定치 않기 때문에 家族의 生計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들 大邱와 大田低所得層婦人의 家口當 月平均收入이 어느정도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 나라의 經濟·社會發展 水準의 第1次 測定指標로 1人當國民所得(GNP)이 利用되듯이, 일반적으로 한 家庭의 生活水準을 설명하는데 있어서의 第1次 指標로는 家口當 月平均所得이 使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社會調査를 통해 한 家庭의 信賴性 있는 所得額을 파악한다는 것은 그다지 容易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本 調査에서 밝혀진 家口當 月平均收入 역시 正確하고 信賴性 있는 應答結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本 調査對象인 都市低所得層住民의 月平均收入 程度를 개략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것 뿐이다. 調査結果 應答婦人의 家口當 月平均收入의 平均値는 大田과 大邱 地域間 差異없이 255,000원으로, 이는 1984年 2/4分期 우리나라 都市勤勞者 家口當 月平均所得額 385,008원[8]에 比하면 무려 平均 130,000원이나 未達하는 狀態이다.

---

7) 文顯相外, 前揭書, 1982.

8) 經濟企劃院, 韓國統計月報, 第26卷第11號, 1984.

Ⅲ. 家族計劃情報의 露出狀態

出産調節을 위한 避姙行爲는 出産調節에 대한 強한 動機와 그 實踐에 필요한 정확한 知識의 習得이 前提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避姙實踐 先行條件은 각종 媒介體를 통한 人口 및 避姙에 관한 諸 情報를 接함으로써 充足되어 질 수 있다. 따라서 家族計劃弘報啓蒙教育은 政府家族計劃事業에서 중요한 事業變數로 채택되어 끊임없이 展開되어 왔으며, 실제로 그동안 多子女 및 男兒選好拂拭의 少子女觀形成과 더불어 出産力低下 및 避姙實踐率 增加에 크게 寄與해 왔다.

이에 本章에서는 大都市地域 低所得層婦人들의 對人 및 大衆媒體로부터의 家族計劃 關聯情報接觸程度와 최근 施行되고 있는 不姙手術受容者에 대한 主要 社會支援施策에의 露出程度를 알아보고자 한다.

1. 避姙勸誘 받은 經驗 및 場所, 勸誘者

먼저 1983년 1월부터 調査時인 1984년 7월까지의 期間동안에 避姙勸誘를 받아본 婦人과 家族計劃關聯모임에 參席해 본 婦人이 어느정도나 되는지를 알아 본 結果가 〈表 9〉에 提示되고 있다. 지난 20個月餘 동안에 全體 應答婦人 가운데 39.8퍼센트가 他人으로부터 避姙勸誘를, 20퍼센트가 家族計劃關聯모임에 참석해 본 經驗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他人으로부터 避姙勸誘를 받아 본 婦人 (大田 : 43.6%, 大邱 : 36.1%) 과 家族計劃關聯모임에의 참석 有經驗婦人(大田 : 24.5%, 大邱 : 15.6%) 의 比率이 모두 大邱地域에 比해 大田地域에서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表 10〉은 1983년 1월부터 調査時까지의 期間동안 누구로부터 避姙勸誘를 받았었는지? 또 어디에서 그 避姙勸誘를 받았는지?에 대해 알아 본 結果를 보여준다. 먼저 避姙勸誘者別 露出程度를 보면, 家族計劃要員으로부터 避姙勸誘를 받았다는 婦人의 比率이 25.7퍼센트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洞事務所 職員으로 13.2퍼센트, 統·班長이 8.3퍼센트, 이웃婦人 또는 親知로부터가 4.7퍼센트 등의 順이었다. 避姙勸誘者別 露出程度에 있어 大田과 大邱地域 間에 아주 두드러진 現狀을 볼 수 있는데, 洞事務所 職員의 避姙勸誘者로서의 對象婦人에의 露出程度이다. 즉, 大田의 경우 洞事務所 職員으로부터 避姙勸誘를 받아 본 經驗이 있다는 婦人의 比率이 24.2퍼센트인데 反해, 大邱地域에서는 同比率

Table 9. Percent Distribution of Respondents by Number of Contraception Induced Experience of Family Planning Related Meeting After January 1983
1983年 1月以後 避姙勸誘를 받아 본 經驗 및 家族計劃關聯 모임에의 參席經驗

	Daejon	Deagu	Total
Number of Contraception Induced Experiences			
None	56.4%	63.9%	60.2%
Yes	43.6	36.1	39.8
1	13.4	15.9	14.7
2	11.7	10.9	11.3
3	7.0	4.6	5.8
4	3.4	3.0	3.2
5 and above	8.1	1.7	4.8
Attending Experience of Family Planning Related Meeting			
None	75.5	84.4	80.0
Yes	24.5	15.6	20.0
Total (N)	100.0 (298)	100.0 (302)	100.0 (600)

이 아주 미미한 2.0퍼센트에 不過, 兩 地域間에 무려 22퍼센트 포인트 이상의 큰 差異를 보여 注目된다. 이와 같은 洞事務所 職員의 家族計劃對象婦人에의 露出率의 地域間 差異는 地方行政長의 家族計劃事業에 대한 關心程度가 反映된 結果가 아닌가 생각된다.

한편, 避姙勸誘를 받은 場所로는 自宅(避姙勸誘者의 對象者 家庭訪問을 뜻함)에서가 27.2퍼센트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保健所로 6.2퍼센트, 洞事務所 5.7퍼센트 등의 順이었다. 避姙勸誘를 받은 場所別 露出率 역시 大田과 大邱 兩 地域間에 약간의 差異를 보였는데, 大田地域에서 各 場所別 露出率이 大邱地域에 比해 모두 높았다. 특히 自宅과 洞事務所의 避姙勸誘場所로서의 露出率은 大田地域(각각 33.2%, 7.7%)이 大邱地域(각각 21.2%, 3.6%)에 比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 點이 두드러진다.

以上에서 살펴 본 〈表 9〉와 〈表 10〉을 綜合觀察하건데, 避姙勸誘를 받아 본 婦人, 家族計劃關聯모임 參席 有經驗婦人, 家族計劃要員 및 洞事務職員으로부터

Table 10. Percentage of Contraception Induced Experienced Women by Inducer and Place after January 1983

1983年 1月 以後 避姙勸誘者 및 勸誘場所別 避姙勸誘를 받아 본 經驗婦人의 比率

	Daejon	Daegu	Total
Inducer			
Family planning worker	29.2%	22.2%	25.7%
Dong officer	24.2	2.0	13.2
Tong or *Ban* chief	8.4	8.3	8.3
PPFK officer	1.0	—	0.5
Saemaul women's association leader (member)	2.3	3.3	2.8
Street campaign worker	1.0	1.0	1.0
Aquaintance	4.0	5.3	4.7
Doctor/nurse	0.3	1.0	0.7
Place			
Home	33.2	21.2	27.2
Health center	6.4	6.0	6.2
Dong office	7.7	3.6	5.7
Monthly *Ban* meeting	2.0	2.0	2.0
Street	4.0	3.3	3.7
Others	6.0	5.6	5.8

그리고 自宅과 洞事務所에서 避姙勸誘를 받아보았다는 婦人의 比率이 大邱地域에 比해 大田地域에서 모두 높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結果는大田地域의家族計劃事業 活動이 大邱地域에 비해 管內 全 公務員을 參與시키는 등 보다 적극적인 事業展開에서 나타난 結果가 아닌가 생각된다.

2. 大衆媒體를 통한 家族計劃情報 接觸

一般對象者들이 家族計劃關聯情報를 接할 수 있는 大衆媒體의 範圍와 그 種類는 상당수에 이르겠으나, 本 調査의 對象이 都市低所得層의 有配偶婦人이라는點을 고려, 텔레비젼, 라디오, 日刊新聞, 週刊雜誌, 月刊雜誌, 家族計劃弘報冊字, 그리고 其他印刷物의 7 가지로 區分하고, 1983年 1月부터 調査時까지인 1984年

7月까지의 期間동안 各 媒體를 통한 家族計劃關聯情報 接觸程度를 알아 보았다.

이에 대한 應答結果인 각 媒體別 家族計劃情報露出率은 〈表 11〉에 提示된 바와 같다. 提示된 7가지 媒體 가운데 應答婦人에의 家族計劃情報露出率이 가장 높은 媒體는 텔레비젼으로 全體應答婦人의 78.7퍼센트가 텔레비전에서 家族計劃에 관한 情報를 들어보았다고 應答했다. 그 다음은 라디오와 日刊新聞(각각 26.5%, 26.3%), 月刊雜誌, 週刊雜誌(각각 16.7%, 16.3%), 其他 印刷物, 家族計劃弘報冊字(각각 16.7%, 16.3%)順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라디오, 日刊新聞, 週刊雜誌, 月刊雜誌 등 一般大衆媒體를 통한 家族計劃關聯情報接觸率이 텔레비전에 비해 월등이 낮은 理由로써는, 選擇的인 露出의 特性을 갖는 大衆媒體의 本質에서도 찾을 수 있겠으나, 특히 日刊紙, 週刊紙 및 月刊雜誌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購讀率 自體가 낮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新聞이나 雜誌를 보거나 라디오를 듣는 機會가 적으면 그만큼 諸般情報의 接觸機會 또한 적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우기 이들 應答婦人들이 經濟, 社會, 文化的으로 보다 劣勢한 環境에 처해있는 都市低所得層 住民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수긍이 되는 結果이다.

한편, 各 媒體大衆別 應答婦人에의 家族計劃關聯情報露出率은 大邱地域에서 大田地域에 比해 全般的으로 약간씩 높은 便이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家族計劃關聯모임 參席經驗率과 對人接觸을 통해 避妊勸誘를 받은 經驗率이 各 勸誘者別로 모두 大田地域에서 더 높았던 것과는 反對되는 結果이기도 하다.

Table 11. Percentage of Women Contacting Family Planning Related Information by Mass Media after January 1983

應答婦人의 1983年 1月以後 大衆媒體別 家族計劃關聯情報 接觸率

Mass Media	Daejon (N=298)	Daegu (N=302)	Total (N=600)
TV	76.5%	81.9%	78.7%
Radio	26.5	26.5	26.5
Newspapers	23.5	29.1	26.3
Weekly Magazine	13.4	19.2	16.3
Monthly Magazine	13.1	20.2	16.7
Family Planning IE & C Materials	4.7	4.0	4.3
Other Printing Materials	4.7	8.3	6.5

이와 같은 結果로 미루어 家族計劃事業의 當爲的인 目標로서의 少子女規範 및 男兒選好觀拂拭에 대한 社會的 雰圍氣의 土着化와 效果的인 避姙의 生活化를 위한 제반 情報 및 知識의 제공을 위한 家族計劃弘報는 그 普及水準이나 露出度面에서 다른 어느 媒體보다도 優勢한 입장에 있는 텔레비젼 프로그램의 보다 많고 效果的인 活用이 더욱 要望된다.

3. 報償制度에 대한 認知·態度 및 受惠程度

政府는 第5次 經濟社會發展計劃(1982~1986)에 의거한 人口目標를 달성하기 위하여 1981年 12月 綜合的인 人口增加抑制對策을 마련, 施行하고 있는데 同 對策에는 49個의 細部施策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本 調査에서는 同 49個 細部施策 가운데 本 調査對象者가 低所得層住民이라는 點을 고려하여 少子女價値觀의 빠른 定着을 目的으로 마련된 몇가지 主要 社會支援施策에 대한 認知 및 受惠程度, 그리고 支持程度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本 調査에서 選擇한 主要 社會支援施策은 주로 永久避姙 즉 不姙施術受容者에 대한 施策으로서, 1982年 1月부터 施行되고 있는 ①生業資金 및 中·長期福祉住宅資金의 融資時 두子女 以下 不姙手術受容者에 대한 優先融資(關聯部處: 財務部)와, 1982年 5月부터 施行되고 있는 ②永久避姙施術受容者 가운데 婦人의 年齡이 滿 34歲以下인 生活保護對象者에 대한 特別生計費支給 및 ③두子女以下 永久避姙施術受容者의 未就學子女(滿 5歲以下)에 대한 保健所 및 保健支(診療)所를 통한 一次 無料診療(入院과 手術 除外)實施였으며, 그 結果가 〈表12〉에 提示되고 있다.

以上의 세가지 支援施策 가운데 本 調査對象婦人에게 가장 많이 露出된 施策은 "不姙施術受容 生活保護對象者에 대한 特別生計費 支給"으로 全體 應答婦人 가운데 77.2퍼센트가 同 施策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은 "生業 및 中·長期住宅資金 融資時 두子女 以下 不姙手術受容者에 대한 優先融資"로 半數를 약간 웃도는 57.2퍼센트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認知率이 가장 낮은 施策은 "두子女 以下 不姙手術受容者의 就學前 子女에 대한 一次 無料診療實施"로 전체 應答婦人中 半數가 채 못되는 47.7퍼센트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調査地域別로는 大邱地域에서 大田地域에 比해 提示된 3가지 施策 모두에 대한 認知率이 약간씩 더 높았다.

한편, 同 施策들의 施行에 따른 實際受惠程度는 同 表에서 볼 수 있듯이, 전

Table 12. Percentage of Knowledge, Favor and Benefit of Major Social Support Measures

主要 支援施策에 대한 認知率·支技率·受惠率

	Daejon (N=298)	Daegu (N=302)	Total (N=600)
Rate of Knowledge			
Provision of monetary subsidies to low-income sterilization acceptors to compensate for lost wages	74.2%	80.1%	77.2%
Provision of primary medical services free of Charge for 0~5 years old chlildren of sterilization acceptors with two or fewer children	47.0	48.3	47.7
Priority to sterilization acceptors with two or fewer children for livelihood loans for the needy and housing loans	54.0	60.3	57.2
Rate of Favor			
Provision of monetary subsidies to low-income sterilization acceptors to compensate for lost wages	84.6%	84.1%	84.5%
Provision of primary medical services free of charge for 0~5 years old children of sterilization acceptors with two or fewer children	91.9	91.4	91.7
Priority to sterilization acceptors with two or fewer children for livelihood loans for the needy and housing loans	85.9	86.4	86.2
Rate of Benefit			
Provision of monetary subsidies to low-income sterilization acceptors to compensate for lost wages	3.7	3.3	3.5
Provision of primary medical services free of charge for 0~5 years old children of sterilization acceptors with two or fewer children	2.3	1.3	1.8
Priority to sterilization acceptors with two or fewer children for livelihood loans for the needy and housing loans	0.7	—	0.3

체 應答婦人의 3.5퍼센트인 21(大邱 : 11名, 大邱 : 10名)名이 不姙手術을 받고 特別生計費를, 그리고 1.8퍼센트인 11名(大田 : 7名, 大邱 : 4名)이 就學前 子女의 一次無料診療를 받은 것으로 報告되고 있다. 生業資金이나 中·長期福祉住宅資金의 優先融資를 받았다는 應答者는 단 2名으로 매우 低調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同 施策의 對象이 法定零細民(報償金支給)이나 0~6歲 子女가 있는 두子女 不姙手術受容者에 局限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널리 弘報가 안된 데서 나타난 結果라고 보겠다.

Ⅳ. 子女에 대한 價値觀

1. 追加子女에 대한 婦人의 態度

婦人의 子女에 대한 價値觀은 여러가지 側面에서 考察될 수 있으나 현재 政府에서 추진중인 人口目標의 基本假定이 1988年까지 人口代置水準의 出産率(TFR :

Table 13. Percent Distribution of Respondents with One or More Children by Status Wanting Additional Children and Number of Living Children

한 子女以上을 둔 婦人의 追加子女希望與否 및 現存 子女數別 追加子女希望婦人의 比率

Classification	Daejon	Daegu	Total
Status Wanting Additional Children			
Wanting	10.2%	8.3%	9.3%
Not wanting	88.1	90.3	89.2
Not clear	1.7	1.4	1.5
Total	100.0	100.0	100.0
(N)	(293)	(283)	(582)
Percentage of Women Wanting Additional Children by Number of Living Children			
1	65.6%	48.6%	56.5%
2	10.3	3.4	6.9
3	–	2.3	1.1
4 and more	–	–	–
Total	10.2	8.3	9.3
(N)	(30)	(24)	(54)

2.1)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本 調査에서는 한子女 以上을 둔 婦人의 追加子女에 대한 態度를 살펴보기로 했다. 〈表 13〉에서와 같이 한子女 以上을 둔 婦人中 斷産을 希望하는 婦人의 比率이 全體의 89.2퍼센트인 반면에 追加子女를 希望한 婦人은 9.3퍼센트에 不過했다. 婦人의 現存子女數別로 보면 한子女를 둔 婦人中 56.5퍼센트가, 그리고 두子女를 둔 婦人의 6.9퍼센트만이 追加子女를 希望하고 있어 이들 都市零細婦人의 두子女에 대한 價値觀도 거의 定着段階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追加子女의 希望與否는 現存子女數의 性別構成에 따라 크게 差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本 分析에서는 세名 以下의 子女를 둔 婦人의 子女數 및 性別로 追加子女의 希望與否를 살펴보았다. 〈表14〉에 提示된 바와 같이 딸을 한名만 둔 婦人中 追加子女를 희망하는 婦人의 比率은 78.6퍼센트의 반면에 아들 한명만을 둔 婦人의 경우는 42.5퍼센트만이 追加子女를 희망하고 있어 男兒選好觀이 追加子女를 增加시키는 要因이 되고 있음을 暗示하고 있다. 이와같은 傾向은 딸만 두名 또는 아들만 두名을 둔 婦人에서 더욱 현저한 差異를 보이고 있으나 딸만 세名을 둔 婦人中 追加子女를 희망하는 婦人은 불과 5.6퍼센트에 지나지 않고 있어 男兒

Table 14. Percent Distribution of Attitudes of Respondents with Three or Less Children on Additional Children by Number and Sex of Living Children
세名以下의 子女를 둔 婦人의 現存子女의 數 및 性構成別 追加子女에 대한 態度

Number and Sex of Living Children	Wanting No More	Wanting Additionals	Not Clear	Total (N)
One Daughter	14.2%	78.6%	7.2%	100.0% (28)
One Son	50.0	42.5	7.5	100.0 (40)
Two Daughters	65.6	29.6	4.8	100.0 (27)
Two Sons	98.8	1.2	–	100.0 (88)
One Son and One Daughter	95.5	4.5	–	100.0 (89)
Three Daughters	94.4	5.6	–	100.0 (18)
Three Sons	100.0	–	–	100.0 (19)
One Son and Two Daughters	98.6	1.4	–	100.0 (71)
Two Sons and One Daughter	100.0	–	–	100.0 (77)
Total (N)	84.4 (386)	11.8 (54)	3.8 (17)	100.0 (457)

選好觀이 拂拭된다면 한 두 名의 子女로 만족해하는 出産風土는 造成될 수 있다고 본다. 本 調査에서 두子女만을 두고 있는 婦人中 斷産을 희망하는 婦人의 比率은 91.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1984年度 全國實態調査 結果의[9] 94.1퍼센트와 比較해 볼 때 이들 都市零細地域 婦人의 子女에 대한 價値觀은 他地域 一般婦人과 거의 同一한 水準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理想子女數 및 性選好

大田 및 大邱市의 零細地域婦人中 두子女가 理想的인 子女規模라고 응답한 婦人이 全體의 68.9퍼센트(大田 : 66.4%, 大邱 : 71.3%)로 가장높고, 한子女를 理想的이라고 응답한 婦人의 比率도 16.4퍼센트에 이르고 있어 이들 婦人의 少子女價値觀은 定着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零細地域婦人이 응답한 平均理想子女數는 2.0名이지만 全體婦人의 58.4퍼센트가 子女의 性을 區別해야 한다는 意見이기 때문에 少子女價値觀의 形成과 더불어 男兒選好觀이 出産

Table 15. Percent Distribution of Respondents by Their Ideal Number and Sex of Children

都市低所得層婦人의 理想子女에 대한 數 및 性選好度

Classification	Daejon	Daegu	Total
Ideal Number of Children			
1	11.4%	21.4%	16.4%
2	66.4	71.3	68.9
3	22.4	7.3	14.7
On Regard to Sex*			
Regardless	36.2	47.0	41.6
Regardful	63.8	53.0	58.4
Total (N)	100.0 (298)	100.0 (300)	100.0 (598)
Mean Ideal Number of Children	2.13	1.87	2.00

*Represents Respondent's Attitude on Sex of Ideal number of children

9) 韓國人口保健研究院, 最近의 人口增加抑制對策 評價, 1984, 12.

行動에 미치는 強度는 더욱 增大될 것으로 豫想된다〈表 15 參照〉.

이와같은 都市零細婦人의 理想子女數는 〈表16〉에서와 같이 1982年度 全國家族保健實態調査에서 나타난 大都市 및 中小都市婦人의 理想子女數보다 훨씬 낮은 水準이다. 즉, 1982年 全國調査에서는 한子女가 理想的이라고 應答한 婦人의 比率이 大都市에서 7.4퍼센트, 中小都市에서 5.2퍼센트로 나타났으나 本調査對象인 大田 및 大邱市의 零細婦人의 경우는 16.4퍼센트로 매우 높고, 두子女에 있어서도 동일한 結果를 보이고 있다.

Table 16. Percent Distridution of Women in Korea by Ideal Number of Children
理想子女數에 대한 婦人의 態度 : 1982 全國調査

Ideal Number of Children	Large Cities	Small Cities	Rural	National
1	7.4%	5.2%	3.4%	5.5%
2	64.1	58.6	41.1	54.6
3	23.4	29.1	39.6	30.5
4	4.6	5.5	11.9	7.4
5 and more	0.5	1.5	4.0	2.0
Total (N)	100.0 (1.813)	100.0 (974)	100.0 (1,559)	100.0 (4,346)

Source:KIPH, 1982 National Family Health Survey Report, 1982.

3. 老後保障時 子女數에 대한 態度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婦人들이 男兒를 選好하는 理由中에는 老後依存을 포함한 經濟的 支援과 家系傳承이 가장 큰 要因인 것으로 각종 研究結果에서 提示되고 있다. 특히 社會·經濟的으로 낙후한 生活을 영위하고 있는 低所得層住民의 경우 子女로부터 기대되는 經濟的 效用度가 높을수록 子女數에 대한 慾求度가 더욱 클 것이라는 假定下에 本 調査에서는 老後生活을 政府에서 保障할 경우의 希望子女數를 살펴 보았다.〈表18〉에서와 같은 大田 및 大邱市의 零細地域婦人中 老後를 保障해 줄 경우에 子女가 필요없다는 婦人이 전체의 17.2퍼센트, 그리고 한子女를 希望하는 婦人이 34.3퍼센트에 이르고 있어 이들 婦人이 생각하고 있는 理想子女數보다 훨씬 낮은 規模의 子女觀을 나타내고 있다. 한 例로서 이들 都

Table 17. Percent Distribution of Respondents by the Desired Number of Children in Case of Social Security at Old Age

老後에 대한 社會保障時 子女의 數 및 性選好度

Classification	Daejon	Daegu	Total
Desired Number of Children			
0	15.8%	18.5%	17.2%
1	29.9	38.7	34.3
2	45.6	37.1	41.3
3	8.1	3.0	5.5
Dont know	0.7	2.7	1.7
On Regard to*			
Regardless	46.6	64.7	55.4
Regardful	53.4	35.3	44.6
Total (N)	100.0 (298)	100.0 (302)	100.0 (600)
Mean Number of Desired Children	1.48	1.26	1.37

*Represents respondents' attitude on sex of desired number of children

市零細地域婦人이 생각하고 있는 平均 理想子女數는 2.0名인데 比하여 老後保障時에 이들이 希望하는 平均子女數는 1.37名으로 0.63名의 差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老後保障時 이들의 希望子女數는 減少되어도 應答한 婦人中 子女의 性은 區別없어도 좋다는 婦人이 55.4퍼센트, 그리고 子女의 性은 區別해야 한다는 婦人이 全體의 44.6퍼센트에 이르고 있음을 볼때 老後保障制度의 導入은 이들의 男兒選好度를 크게 緩和시킬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對策으로는 限界가 있기 때문에 社會制度的인 측면에서 그 代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4. 아들의 必要性에 대한 態度 및 理由

大田 및 大邱市의 零細地域婦人中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고 應答한 婦人의 比率은 전체의 41.8퍼센트에 이르고 있어 설령 이들 婦人이 생각하는 理想子女數가 2.0名水準이라고 할 지라도 아직도 강력한 男兒選好觀으로 인하여 子女에 대한 態度와 出産行動間에는 큰 격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表18〉에서 아들이

Table 18. Percent Distribution of Respondents' Attitude on Son Necessity by Respondent's Age, and Number and Sex Composition of Living Children
應答婦人의 年齡 現存子女의 數 및 性構成別 아들의 必要性에 대한 態度

Classification	Necessary	Preferable	Not Necessary	Total (N)
Respondent's Age				
15~24	28.3%	30.4%	41.3%	100.0% (46)
25~29	28.5	35.8	35.8	100.0 (165)
30~34	39.6	27.3	33.1	100.0 (139)
35~39	50.4	26.4	23.4	100.0 (130)
40~44	59.2	21.7	19.2	100.0 (120)
Number of Living Children				
0	22.2	33.3	44.5	100.0 (18)
1	20.3	31.9	47.8	100.0 (70)
2	36.5	29.1	34.5	100.0 (203)
3	44.9	31.9	23.2	100.0 (185)
4	57.5	24.1	18.4	100.0 (87)
5 or more	70.3	10.8	18.9	100.0 (37)
Sex Composition of Living Children				
No children	22.2	33.3	44.5	100.0 (18)
No sons	22.9	33.7	43.4	100.0 (83)
No daughters	31.5	32.9	35.6	100.0 (149)
Both	51.8	25.4	22.8	100.0 (350)
Total (N)	41.8 (251)	28.5 (171)	29.7 (178)	100.0 (600)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婦人의 比率은 婦人의 年齡이나 現存子女數가 많을수록 높은 傾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高齡層일수록 傳統的 價値觀이 강한 데서 오는 당연한 結果라고 본다. 그러나 흥미있는 사실은 아들이 있는 婦人의 아들에 대한 必要度가 딸만 있는 婦人層보다 더욱 높다는 點이다. 이와같은 結果는 딸만 있는 婦人(全体應答婦人의 13.8%)중에는 이미 딸만으로 希望하는 數의 出産을 完了했거나 비교적 男兒選好度가 낮은 젊은 婦人層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全體的으로 아들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婦人은 불과 29.7퍼센트에 지나지 않

Table 19. Percentage of Respondents by Reasons or Son Necessity*
아들이 必要한 主要 理由別 應答率

Reason for Son Necessity	Daejon (N=219)	Daegu (N=203)	Total (N=422)*
For Succession of Family Line	42.0%	59.1%	50.2%
For Depedence at Old Age	49.8	34.0	42.2
For Happiness and Harmmony Family	18.7	17.7	18.2
For Full Feeling	16.9	11.3	14.2
For Ritual	4.6	2.0	3.3
Others	5.5	11.3	8.3

*Represents percentage of reasons for son necessity said by 422 women responding "Son is necessary" or"Son is preferable to nothing" in the Table 18.
One woman might state more than one reason.

고 있어 都市零細婦人의 男兒選好觀은 매우 강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우리나라 年間 總出生數의 80퍼센트以上을 차지하고 있는 20代婦人이나 子女를 0～1名 갖고 있는 젊은 婦人層에서의 男兒選好度는 비교적 낮은 反面에 30歲以上의 男兒選好度가 높은 對象層은 이미 出産을 終了한 集團이라는 點에서 앞으로 出産力은 지속적으로 低下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들 都市零細集團은 社會經濟的으로 낙후된 與件속에서 生活하고 있기 때문에 子女의 經濟的 効用價値 등으로 인한 男兒選好觀의 強度가 높을 수도 있으므로 이들의 價値觀을 緩和시킬 수 있는 과감한 社會支援策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表20〉에서「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거나「있는것이 좋다」고 應答한 婦人이 아들을 필요로 하는 理由를 보면, 家系繼承과 老後依持가 높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다. 즉 大田의 零細婦人에서는 老後依持가 49.8퍼센트로 가장 높은 反面에 大邱에서는 家系繼承이 59.1퍼센트로 가장 높아 地域間에 큰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男兒選好의 이유는 크게 家系繼承과 老後依持가 그 主流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男兒選好觀을 緩和시키기 위한 社會支援施策의 開發은 上記兩側面에서 동시에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5. 家族計劃標語에 대한 態度

1971年以來 採擇하여온 "딸·아들 區別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弘報標語에 대한 婦人의 態度를 보면 두子女에 대한 贊成率이 87.8퍼센트, 그리고 "딸·아들 區別없이"에 대한 贊成率이 65.3퍼센트인데 反하여 1982年 全國調査結果에 의한 中小都市婦人은 각각 91.7퍼센트, 74.6퍼센트의 贊成率을 보였다. 〈表20〉에 提示된 바와같이 가장 큰 差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男兒選好에 관한 사항으로 大田 및 大邱市의 零細婦人中 두子女에는 贊成하지만 "딸·아들 區別없이" 에는 反對하는 婦人의 比率이 28.3퍼센트로 1982年 全國調査에 의한 中小都市 婦人의 19.3퍼센트에 比하여 매우 높은 水準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 都市零細婦人의 男兒選好觀이 他 都市婦人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971年以來 두子女規範에 力點을 두어온 家族計劃標語는 婦人의 出産力이 減少됨에 따라 1983年부터는 "둘도많다," "祝福속에 子女하나, 사랑으로 튼튼하게" 등의 한子女를 內容으로 하는 弘報活動이 展開되었다. 이와같은 한子女에 관한 弘報活動은 政府가 計劃하고 있는 1988年까지 人口代置水準의 出産力 目標를 達成하는데 종래의 "두子女" 弘報標語로는 限界性이 있기 때문에 한子女의 利點을 弘報함으로써 한子女로 만족해 하는 婦人의 比率을 다소라도 높여보자는데 目的이 있다고 하겠다.

Table 20. Percent Distribution of Respondent's Attitudes on Slogan "Stop at Two Regardless of Sex"

"딸·아들 區別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에 대한 婦人의 態度

Attitude	Daejon, Daegu Survey			1982 National Survey			
	Daejon	Daegu	Total	Large cities	Small cities	Rural	National
Approve of Slogan	55.7%	63.2%	59.5%	79.7%	72.4%	63.7%	72.3%
Disapprove of Slogan	4.7	2.3	3.5	4.1	6.2	12.5	7.6
Disapprove Only of "Regardless of Sex"	34.6	22.2	28.3	13.0	19.3	19.6	16.8
Disapprove Only of "Stop at Two"	3.0	8.6	5.8	3.2	2.2	4.2	3.3
Don't Know	2.0	3.7	2.9	–	–	–	–
Total (N)	100.0 (298)	100.0 (302)	100.0 (600)	100.0 (1,816)	100.0 (974)	100.0 (1561)	100.0 (4,351)

Table 21. Percent Distribution of Respondent's Attitude on Only Child

한子女에 대한 婦人의 態度

Attitude	Daejon Daegu Survey			1982 National Survey			
	Daejon	Daegu	Total	Large Cities	Small cities	Rural	National
Appropriate	32.6%	49.3%	41.0%	22.0%	14.3%	9.9%	15.9%
Too Samall	67.4	50.0	58.7	78.0	85.7	90.1	84.1
Don't Know	–	0.7	0.3	–	–	–	–
Total (N)	100.0 (298)	100.0 (302)	100.0 (600)	100.0 (1,813)	100.0 (974)	100.0 (1,559)	100.0 (4,346)

〈表21〉에서와 같이 한子女에 대한 弘報가 展開되기 以前인 1982年에 실시된 全國調査에서는 한子女가 적당하다는 婦人의 比率이 15.9퍼센트(中小都市 : 14.3%)에 지나지 않았으나, 1984年의 本調査에서는 41.0퍼센트로 나타나 그간의 弘報活動은 婦人의 한子女價値觀을 促進시키는데 큰 成果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한子女로 만족한다는 婦人의 比率이 크게 增大되었다할지라도 항상 子女數에 대한 態度와 出産行動間에는 큰 격차가 있기 마련이고 특히 都市零細婦人의 강한 男兒選好觀을 감안할 때 과거와 같은 出産力의 급격한 低下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避姙서비스가 無料로 提供되고 都市地域에 偏重되어 있는 避姙普及處(指定病院)를 감안할때 避姙서비스의 接近性을 높이기 위한 努力보다는 男女平等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과감한 社會制度的 支援施策의 추진으로 이들의 出産力 減少에 力點을 두어야 할것이다.

V. 避姙実践 現況

일반적으로 避姙實踐率의 增大와 出産力의 低下는 상호 밀접한 相關關係를 갖고 있으나 동일한 수준의 避姙實踐率이라 할지라도 出産力의 變動은 子女數의 規範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고 避姙行動(斷産 또는 터울調節 目的)에 따라 큰 差異를 나타내기 마련이다. 그러나 大田 및 大邱地域 零細婦人(15~44歲)의 避姙實踐率은 77.0퍼센트로서 1984年 全國調査의 70.3퍼센트(都市 : 71%, 農村:69%)보다 높은 實踐水準을 보이고 있고, 한 子女數에 대한 婦人의 贊成率도 他地域婦人보다 훨씬 높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어 그간에 都市家族計劃事業의 일환으로 추

Table 22. Contraceptive Practice Rate by Method and Respondents' Characteristics

避姙方法別 婦人特性別 避姙實踐率

Classification	Daejon, Daegu Survey			National
	Daejon	Daegu	Totel	Survey*
Contraceptive Method				
Tubectomy	46.3%	32.8%	39.5%	34.0%
Vasectomy	6.7	7.6	7.2	7.4
IUD	9.1	8.6	8.8	6.7
Oral pill	3.7	5.6	4.7	6.2
Oondom	3.0	5.0	4.0	5.8
Others	9.7	15.9	12.8	10.2
Respondents' Age				
15~24	41.7	31.8	37.0	32.0
25~29	69.3	65.6	67.3	62.0
30~34	88.5	85.9	87.1	86.0
35~39	90.6	92.3	91.5	87.0
40~44	81.1	74.5	78.5	72.0
Number of Living Children				
0	-	-	-	43.0
1	28.1	43.2	36.2	41.0
2	82.8	87.1	85.2	81.0
3	87.8	78.4	83.3	85.0
4	92.5	85.3	89.7	83.0
5 or more	78.5	92.9	83.8	75.0
Total (N)	78.5 (298)	75.5 (302)	77.0 (600)	70.3

* Family planning survey data on women aged 15~44, conducted together with 1984 National Survey on the Aged by KIPH.

진되어온 零細民에 대한 避姙普及 方式은 매우 成功的인 것으로 評價된다.

〈表 22〉에서 避姙方法別 實踐率을 보면 不姙實踐率이 46.7퍼센트(精管:7.2%, 卵管:39.5%)로 가장 높고, 子宮內裝置를 포함한 일시적인 避姙方法의 實踐率이 30.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들 婦人中 年齡이 30歲以上이고 두子女以上

Table 23. Percent Distribution of Respondents by Family Planning Status

避姙實踐與否 및 非實踐事由

Family Planning Status	Daejon	Daegu	Total
Practing	79.5%	75.5%	77.0%
Not Practing	21.5	24.5	23.0
Want children	11.7	15.9	13.8
Natural sterility	2.7	2.3	2.5
Pregnance against respondents' will	0.7	0.7	0.7
Side effect	3.4	2.3	2.8
Others	3.0	3.3	3.2
Total	100.0	100.0	100.0
(N)	(298)	(302)	(600)

Table 24. Percent Distribution of Respondents' just before Current Practice of Sterilization or IUD Previous Family Planning Status

不姙 및 子宮內裝置 施術直前 避姙實踐狀態

Family Planning Status	Tubectomy	Vasectomy	IUD	Total
Not Practicing	48.9%	53.5%	69.8%	52.9%
Practicing	51.1	46.5	30.2	47.1
IUD	11.0	9.3	–	9.0
Orall pill	19.8	14.0	13.2	18.0
Condom	7.6	11.6	7.6	8.1
Others	12.7	11.6	9.4	12.0
Total	100.0	100.0	100.0	100.0
(N)	(237)	(43)	(53)	(333)

을 둔 婦人의 避姙實踐率은 85퍼센트 以上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避姙實踐은 상당수가 斷産 目的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30歲 以上 婦人의 避姙實踐率은 이미 上限線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表23〉에서 未實踐婦人의 比率 23.0퍼센트 中에서 姙娠을 願하는 婦人(13.8%)과 自然不姙인 婦人(2.5%)을 제외하면 앞으로 避姙을 受容해야 할 對象은 全體婦人의 6.7

퍼센트 밖에 없다는 結論이다. 따라서 이들 零細地域婦人에 대한 앞으로의 避姙普及戰略은 20代의 젊은層에서 터울調節目的의 避姙實踐이 生活化 되도록 하는 한편, 이미 避姙을 受容한 婦人에 대한 事後管理를 강화하여 繼續使用率이 增大될 수 있도록 하는데 力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表 24〉에서 不姙手術이나 子宮內裝置를 實踐하고 있는 婦人中 避姙施術을 받기前의 避姙方法을 보면 精管의 경우 51.5퍼센트가, 그리고 卵管의 경우 46.5퍼센트가 一時的인 方法을 사용하다가 不姙手術로 轉向하였고, 子宮內裝置 實踐婦人의 경우 30.2퍼센트가 먹는 避姙藥 등 他 方法의 使用을 經驗하였다. 따라서 避姙施術方法(不姙 및 子宮內裝置)의 實踐婦人中 47.1퍼센트가 施術直前에 他方法을 使用했다는 사실은 일시적인 避姙方法의 中斷率은 不姙手術의 높은 受容性에 比例하여 더욱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不姙手術의 普及에 力點을 두어온 政府의 避姙普及戰略은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Ⅵ. 要約 및 結論

1962年부터 着手된 經濟開發計劃의 성공적인 推進으로 인한 産業構造의 變化와 都市化의 促進은 農村人口의 都市轉入을 加速化시키게 되었고, 이에 따라 都市零細民을 위한 家族計劃事業의 중요성이 많은 識者에 의해서 強調되었다. 이에 政府는 1974年부터 이들 地域住民을 위한 각종 事業活動을 전개해 왔다. 이와 관련된 그동안의 調査研究는 주로 서울地域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結果도 이들 地域住民의 避姙實踐率이나 出産率은 都市 一般住民과 큰 差異가 없음을 提示하였다. 따라서 이번의 調査는 大田 및 大邱地域의 零細住民을 대상으로 이들의 避姙實態를 종합적으로 分析하여 向後의 事業推進方向을 提示하는데 力點을 두었다.

1984年 7月中 大田 및 大邱市의 零細地域에 거주하고 있는 15~44歲婦人 600名을 대상으로 調査된 結果에 의하면 이들의 避姙實踐率은 77.0퍼센트로 1984年 全國調査에 의한 70.3퍼센트보다 높은 水準이었고, 少子女(1~2名)에 대한 婦人의 態度도 他地域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都市零細民은 敎育 및 所得水準이 낮고 農村에서 轉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出産力이 높고 避姙實踐率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반대로 이들은 都市의 社會文化圈內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生活水準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들 零細地域婦人들은 他地域婦人보다 避姙實踐이나 少子女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認識되고 있는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 주요 調査結果에 의한 몇가지 政策的 提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大田 및 大邱市 零細地域의 應答婦人中 30歲以上이고 두子女 以上을 둔 婦人의 避姙實踐率은 85.0퍼센트 以上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20代婦人의 避姙實踐率은 비교적으로 저조(15~24歲 37.0%, 25~29歲 67.3%)한데, 이들은 出産力이 가장 왕성한 集團이라는 點을 감안할때 앞으로의 接近對象은 20代 婦人層에 力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限定된 도시지역의 要員數로 事業의 效率性을 높이기 위해서는 政府 事業對象의 婦人年齡을 20~29歲로 축소조정하는 方案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로, 全體應答婦人中 未實踐婦人의 比率이 23.0퍼센트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姙娠을 願하는 婦人(13.8%)과 自然不姙인 婦人(2.5%)을 除外하면 放任狀態에 있는 婦人은 불과 6.7퍼센트에 지나지 않기때문에 앞으로 避姙實踐率의 增大는 새로운 避姙受容者의 확보보다는 避姙을 實踐하고 있는 婦人에 대한 事後管理를 강화하여 繼續使用率의 증대를 통한 事業의 效率性 增大에 力點을 두어야 한다.

세째로, 두子女 不姙受容者에 대한 報償制度中 零細民과 직접 관련된 生計費 支給, 0~5歲子女에 대한 無料診療, 그리고 生業 및 住宅資金의 우선융자에 대한 認知率은 48~77퍼센트, 支持率은 85~9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나 직접 이들 施策의 受惠率은 각각 3.5퍼센트, 1.8퍼센트, 0.3퍼센트로 매우 低調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結果는 施策의 受惠對象이 法定零細民이나 0~5歲 子女가 있는 두子女 不姙受容者에게 限定되어 있고, 특히 資金融資의 경우 극히 제한된 財源과 節次의 복잡성, 償還能力 등에 기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報償制度는 法定零細民을 포함하여 低所得層의 두子女 不姙受容者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施策으로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네째로, 1983년 1월부터 1984년 7월까지의 기간중 他人으로 부터 避姙勸誘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婦人의 比率은 39.8퍼센트, 그리고 家族計劃모임에 參席해 본 婦人은 20.0퍼센트에 불과하며, 家族計劃要員으로 부터 권유를 받았다는 婦人이 25.7퍼센트로 가장 높고 새마을 婦女會長으로 부터가 2.8퍼센트로 가장 낮다. 本 調査結果에 의한 避姙勸誘者의 比率이 가장높은 順序는 要員, 洞事務所 職員, 統班長으로 政府의 行政組織을 통한 接近活動이 크게 作用하고 있으나

事業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地域社會住民의 自發的 參与에 의한 避姙實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새마을婦女會의 事業活動이 內實化될 수 있도록 強化되어야 한다.

끝으로, 應答婦人中 1子女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婦人은 全體의 41.0퍼센트로 1982年 全國調査에 의한 大都市婦人의 22.0퍼센트에 비하여 매우 높은 比率을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 한子女의 利點을 살린 弘報活動을 적극화 함으로써 한두子女로 만족해 하는 家庭의 比率이 크게 增大될 수 있도록 弘報內容이 強化되어야 겠다. 또한 本 調査에서 1983년 1월부터 1984년 7월까지의 기간중 家族計劃에 관한 媒體別 接触度를 보면 텔레비젼이 78.7퍼센트로 가장 높고 라디오 및 日刊新聞이 각각 26.0퍼센트, 그리고 週刊雜誌가 각각 16.0퍼센트를 차지한 반면에 家族計劃弘報冊子는 4.3퍼센트에 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향후의 弘報媒體는 대다수의 국민이 쉽게 接할 수 있는 기존의 大衆媒體를 活用하여 事業의 效率性을 높이는데 力點을 두어야 할 것이다.

結論的으로 本 調査에서 나타난 大田 및 大邱의 零細地域에 居住하고 있는 婦人의 避姙實踐이나 少子女에 대한 態度는 都市地域의 一般婦人보다 훨씬 높은 水準을 나타내고 있어 그간 推進되어 온 都市零細民을 위한 家族計劃事業은 매우 成功的인 것으로 評價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都市零細民의 社會經濟的 与件을 감안할 때 同 事業은 앞으로 政府家族計劃事業에서 가장 優先을 두어 계속 支援되어야 할 것이며, 위에서 提示한 몇가지 提言에 따라서 旣存의 事業管理運營方式이 시급히 改善되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經濟企劃院 韓國統計 月報 第26卷 第11號, 1984.

高甲錫, 崔錫萬, 都市低所得層 家族計劃事業評價, 家族計劃研究院, 1979.

權豪淵, 趙南勳, 崔焞, 서울市 零細民地域 家族計劃實態 및 그 普及方案研究, 家族計劃研究院, 1974.

文顯相 外, 1982年 全國家族保健實態調査報告,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2.

李効再, 李東媛, 都市貧民家族問題 및 家族計劃에 관한 研究, 女性資源開發研究所, 1972.

林鍾權, 金智子, 李德成, 統班長을 통한 都市低所得層 住民의 母子保健 및 家族計劃 普及方案研究 基礎調査報告書, 家族計劃研究院, 1978.

韓國人口保健研究院, 最近의 人口增加抑制對策評價, 1984.

Abstract

Analysis of Family Planning in Urban Low-Income Brackets — Based on Daejon and Daegu Cities —

Nam-Hoon Cho* · Im-Jun Lee**

Since the inception of the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in 1962, the main emphasis has been placed on the provision of contraceptive services and IE&C activities through home visits by family planning field workers and through the government designated private physicians. This approach has been a powerful management system for the national program, particularly in the rural area. However, new issues in the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emerged with the subsequent socio-economic changes since 1962. An increasing number of the rural population began to migrate to the urban area, and therefore beginning in the 1970's more weight had to be given to the family planning services for the urban area, in particular, for those in the low-income brackets.

In an effort to increase contraceptive acceptors among the urban low-income people, the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ed various special projects for them since 1974 through maximum utilization of community leaders including Tong and Ban Chiefs and mother's clubs, and family planning workers in their areas. Thus, this paper is aimed to analyse the current status of family planning and fertility behavior of urban low-income wives as a part of program evaluation. Also, this paper is based on an analysis of the 1984 Family Planning Survey data which was conducted in July 1984 and responded by 600 married women aged 15—44 in the low-income areas of the Daejon and Daegu cities.

The survey data revealed that the contraceptive practice rate was 77.0 percent which was much higher than 70.3 percent of the national practice rate in the same year, and the approval rate for the one or two children of the low-income areas was much higher than that of other urban area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re suggested for the better program implementation; 1) improvement of program management system for recruiting

* Senior Fellow,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 Senior 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Health.

new acceptors in the 20s for birth spacing, 2) development and inducement of innovative incentive schems and IE&C activities for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the one child families, and 3) strengthening the utilization of community resources including mother's clubs.